

성별	여	나이	29세	직종	제조공(검사)	직업관련성	낮음
----	---	----	-----	----	---------	-------	----

1. 개요

유○○는 2000년 7월 4일 A전자(주) 반도체 공장에 입사하여 검사공정에서 근무도중 2001년 11월 쉽게 멍이 드는 증상으로 내원했다가 재생불량성 빈혈로 진단을 받았다.

2. 작업환경

작업내용은 보드에 칩을 끼우거나 빼내며, 125℃의 열을 가해 초기 불량을 검사하여 제거하는 업무이다. 원자재나 화학물질 등의 사용물질이 없었고 조립이 끝난 제품(반도체 칩)에 열을 가하는 공정이다. 작업환경측정은 소음 이외의 요인에 대해 시행하지 않았다. 입사 이전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한 적은 없었다.

3. 의학적 소견

근로자는 흡연과 음주를 전혀 하지 않았다. 특별한 질병력이나 복용 중인 약물도 없었고 가족 중 유전질환, 혈액질환, 암환자는 없었다. 근로자에 의하면 2000년 7월 입사 후 16개월만인 2001년 11월 코피가 나면 잘 멈추지 않고 멍이 쉽게 드는 증상과 함께 눈의 혈관이 터지는 증상으로 안과를 방문한 결과 유두부출혈 (optic disc hemorrhage)로 진단받고 큰 병원에 가보라는 권유에 따라 모태학교 병원 방문, 혈액 및 골수검사 결과 재생불량성빈혈을 진단 받았다. 회사에 병가 처리하고 이후 한달 정도 약물치료 (면역억제제) 받고 다시 2002년 1월 현장복귀하였는데 일주일 정도 근무 후 온 몸에 붉은 반점이 생기는 등 증상이 악화되었다. 지속적인 외래 관찰 중 2002년 6월 시행한 골

수검사 결과 세포밀도 5% 이하로 다시 면역억제제 치료를 시작하였으며 반복적인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으로 잦은 병원치료를 받았다. 약물치료에는 적절한 반응이 없어 더 이상의 약물치료를 중단하고 병가 사용 중 2003년 2월에 퇴직하였다. 현재는 통원치료 중에 있으며 골수이식 계획 중에 있다.

4. 결론

근로자 유○○의 재생불량성빈혈은

- A 전자 공장에 입사하여 16개월 간 고열 테스트공정에 근무하던 중 16개월 후 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되었는데,
- 작업 중 재생불량성빈혈을 일으킬 수준으로 그 원인물질에 노출되었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었다.